



결코 멀지 않은 불행

영훈 고등학교 3학년 길 면 수

이 세상 누구나가 하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모든 나라 국민들이 자기들의 나라가 축복 받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축복 받기를 원하는 것과 실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과는 크나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태고적 부터 우리 인간의 발전과 함께 이어 온 불에는, 이조말엽 「장질 부사는 불치의 병. 걸리면 죽고만다」고 알고 있을 때, '허균'이라는 의원의 울바른 불의 사용에 수백명 한 마을 사람들의 목숨을 구해주었던 '좋은 불'과, 인간의 행복의 요람 '우리 집' 등을 순식간에 태워버리는 악의 불, 개스룩발과 같은, '인간이 증오하고 미워하는 불'이 있습니다.

1975년 4월 26일. 그 날은 제 친구가 세상에 태어나서 15번째 맞는 '생일날'이었습니다. 3년전부터 시작해온 친구 아버지의 사업은 계속 호조를 보여, 친구의 생일에 즈음해서는 남들이 말하는 '성공'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친구의 생일은 누구보다도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생일선물. 그리고 귀여운 막내 동생의 생일축하, 노래는 친구들이 세대에서 가장 행복한 소년으로 만들었습니다. 아! 그러나 이젠 또 무슨 운명의 깃곳은 장난이란 말입니까? 친구 아버지께서 무심코 버린 담배꽂이가 종이를 태우고 마루를 태우

고, 온 집을 불바다로 만들고 말았으니, 아름다운 꿈에만 잠겨있던 친구의 생일파티는 산산조각이난채, 질식할듯한 연기를 맡으며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는 어린 동생의 귀여운 장난감이 있었고, 어머니께서 그렇게도 애끼시던 가구며 옷장들. 그리고 10년 전 상경하여 남들이 모두 깊은잠에 빠져있는 새벽부터 남대문 시장에 나가시면서까지 번 재산, 「서울에 가서 성공해보겠다. 남들보다 더 잘 살아 보시겠다며, 1000원을 벌면, 700원을 저금하시던 피와 살이 어린 아버지의 재산이 시뻘건 불구덩이에 활발하고 있을때 안타깝게, 지켜보던 친구와 가족들의 마음은 어땠겠느냐고 이 연사 여러분께 묻고만 싶습니다!

밤새도록 동네주민들의 도움으로 불길을 잡은 집에 들어간 친구의 말을 들어 보았습니다. “여기저기서 피어오르는 연기, 타다만 세간들, 그리고 다 타서 까맣게 변한 책과 노트, 모두가 까맣게 변했다. 책상이 있던 자리에 가서 까만 재를 한 움큼 쥐어든 나는 믿어지지 않았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다. 이것이 책상이란 말인가? 저것이 나의 국어책인가? 아니면 영어책인가? 순간 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영영 울어버리고 말았다. 그때 뒤에서 「모든 것이 다 내 불찰이

다. 그 담배꽂이가 내집을 태웠어. 내가 바보였어. 내가 바보야」하시는 아버지의 가냘픈 신음 소리를 들었을때, 나는 「아닙니다. 아버지! 집이 불이난 것은 아버지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식구 모두가 조금만 더 조심했다라면 이렇게 후회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저의 생일파티도 행복하게 보낼수 있었을 것입니다」고 말하자 「우리 식구는 그 자리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울었다. 하지만 까맣게 변해버린 채위에서 그 누구를 원망하고 그누구를 붙잡고 하소연해야 했겠니? 하며 얘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자기가 맞지만 남이 싸우는 것만큼 재미있는 일이 없고 자기 집이 타지 않으면 불구경 만큼 신나는 일이 없다고 하지만, 만일 여러분의 집이 화재를 당하여 까만 재로 변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책임을 누구에게로 돌리시겠습니까? 성냥불로 불이 났으니 성냥 회사에 책임을 돌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과 재산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 모두가 불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더 높여서 내 가족, 내 재산을 화재의 재물로 바치지 말아야 겠다고 이연사 마자, 막 애끓는 절규를 보내드립니다.